



보도시점 2025. 9. 16.(화) 11:00 < 9. 17.(수) 조간 >

배포 2025. 9. 16.(화)

# 탄소중립과 지속성장의 열쇠, 기후테크 육성 나선다

- 산업부, 기후테크 스타트업·벤처캐피탈 14개사와 함께 간담회 개최
- 탄소중립시대 신성장동력으로 기후테크 육성 종합대책 마련 추진

새정부 탄소감축 목표 달성과 함께 이를 지속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해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16일(화) 서울에서 14개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벤처캐피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테크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기후테크 육성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기후 신산업 육성,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 대응 등을 위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을 탄소중립 시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 위해 △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전주기 집중투자, △ 국내 시장 창출 및 해외시장 선점 지원, △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 및 투자업계 참석자들은 △ 기후테크 산업 투자확대, △ 시장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규제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산업부 조익노 국장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 전략」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에너지 전환과 혁신 생태계 확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과제로,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관계 부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기후테크 육성 종합 대책에 반영함으로써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150)
		담당자	사무관	조희정 (044-203-5156)